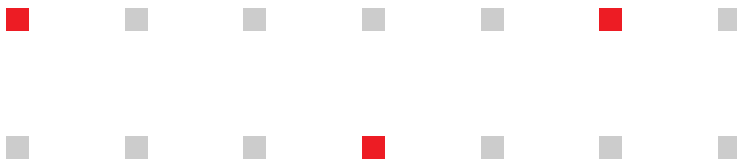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전라북도 인구구조 변화



연구진 이 강 진 연구위원 kjl@jthink.kr
이 창 우 부연구위원 urban@jthink.kr

1. 문제제기
2. 저출산 고령화 이슈
3. 다문화 이슈
4. 교육 이슈
5. 기타 인구구조
6. 정책제언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1년 6월 13일 vol.43

발행처: 전북발전연구원 | 발행인: 원도연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앙동 4가 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전라북도 인구구조 변화

- 1. 문제제기 4
- 2. 저출산 고령화 이슈
 - 1) 합계출산율은 전국을 상회, 영유아 인구는 감소 4
 - 2) 노령화 지수의 상승과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이동 6
- 3. 다문화 이슈
 - 1) 낮아지는 외국인 연령 7
 - 2) 증가하는 대졸 외국인 8
- 4. 교육 이슈
 - 1) 고학력자 시 지역에 편중 심화 9
- 5. 기타 인구구조
 - 1) 도내 인구의 도시집중 진행 중 10
 - 2) 세대구성원 통계보다 작아 12
 - 3) 생산 인력층의 고령화 심화 12
- 6. 정책제언 14
- ※ 참고자료

| 요약 |

- ① 2010년 전북인구는 2005년 대비 0.72% 감소한 1,766,044명이며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5~9세로 26.4% 감소하였고 0~4세도 12.0% 감소하는 등 저출산과 유소년 인구유출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남
- ① 한편, 인구 증가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85세 이상으로 43.5% 증가하였고 80~84세도 39.2% 증가하는 등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 ① 인구총조사에서 나타난 인구구조의 특징 중 하나는 44세 이하는 15~19세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하고 그 이상에서는 65~69세의 소폭 감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하여 40대 초반을 기점으로 하여 낮은 연령층에서는 저출산, 인구유출이 발생하고 높은 연령층에서는 인구유입,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① 저출산 고령화로 전라북도의 평균연령은 2005년 38세에서 2010년 39.9세로 증가(2010년 평균연령 중 임실이 52.1로 가장 높음), 연령 중위수도 37.3에서 40.5로 증가 하였고 합계출산율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노령화지수는 2005년 74.7%에서 2010년 100.3%로, 노년인구부양비는 2005년 21.3%에서 2010년 24.4%로 증가하여 사회가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① 한편, 경제활동가능연령은 줄어들고 있음. 15세 미만 인구는 2000년 382,184명에서 2010년 288,742명으로 감소하였고, 65세 이상은 211,579명(2000년)에서 289,584명(2010년)으로 증가한 반면 15~64세의 일할 나이의 연령의 인구는 1,293,396명(2000년)에서 1,187,718명(2010년)으로 감소
- ① 2010년 말 주민등록상 인구와 인구총조사 인구가 10만명 정도 차이가 있어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고 타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등록상에 나타난 가구당 인원이 더 적음
- ① 외국인 수는 2005년 대비 115%, 1995년 대비 6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고 베트남, 중국(한국계), 필리핀, 미국, 몽골 순이나 중국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① 몽골 여성의 경우에는 2005년 대비 843%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베트남 여성의 경우는 2005년 대비 636% 증가하는 등 급속도로 여성외국인이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음
- ① 외국인의 증감의 특성은 결혼이민의 중개업자들의 활동반경에 따라 연도별 국별 차이가 많이 발생함 (국제결혼 중개업 활동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
- ① 결혼이민자 지역의 특성을 보면 (기존 전라북도 연구) 전주시 등 시지역에 총 68.9% (2009년 기준)로 시에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① 전북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 취업을 위한 외국인 유입 보다는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해외이주 여성의 특징이 점차 이주해오는 여성의 평균 연령층이 낮아지며 (2009년 29세) 대학졸업자의 수가 높아짐에 따라 복지차원에서 대책과 함께 고급인력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1. 문제 제기

-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Population and Housing Census)를 실시한 결과가 최근에 발표되어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해 관심 있는 국민들은 이번 발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음
- ▶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적 규모의 통계조사로서 정부가 특정시점에 우리나라의 인구, 가구,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조사임
- ▶ 이 조사는 국가가 주관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의 총수와 그 개별적 특성을 일일이 조사하는 전수조사로서 이의 활용 범위는 경제·사회 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와 각종 학술연구, 민간부문의 경영계획수립에 활용되는 등 광범위함
- ▶ 인구총조사는 정부가 특정 시점에서 대한민국영토내의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이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18회째로 전(前) 조사와 마찬가지로 기준시점은 조사연도의 11월1일 0시로 하였음
- ▶ 지난 5월 30일 발표된 부분은 인구부문으로 전수조사에 대해 원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기본 자료만 제공되어서 분석의 한계가 있으나, 향후 원자료가 공개되면 보다 세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임
- ▶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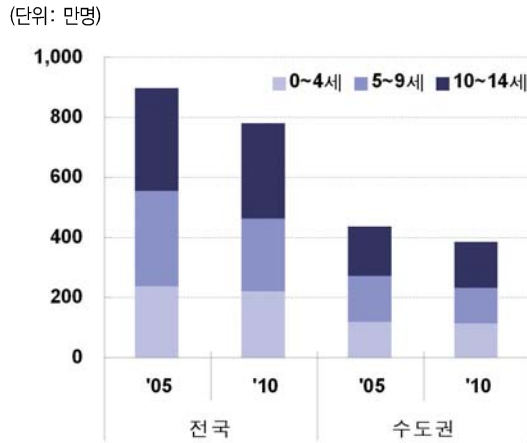
2. 저출산 고령화 이슈

1) 합계출산율은 전국을 상회, 영유아 인구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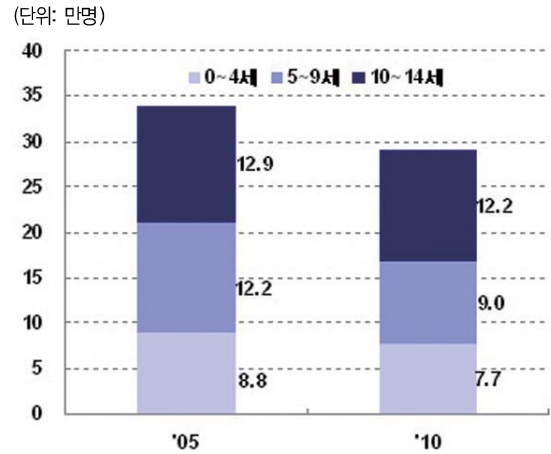
(1) 0~4세 인구 12% 감소

- ▶ 2010년 연령대별 인구 구성을 보면 노년층의 인구 비중은 높은 반면, 유소년층의 인구는 전국과 비슷한 구성을 보여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계층의 비중이 낮아, 인구구성면에서 생산성이 낮을 가능성이 제기됨
- ▶ 유소년층의 인구의 비중을 보면 전북은 전국, 수도권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저출산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임을 볼 수 있음
- ▶ 영유아(0~4세)의 경우에는 2005년에 비해 12%나 감소하였고, 5~9세도 26.4% 감소하여 유소년층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 ▶ 전북도 내에서 시부와 군부를 비교하면, 저출산의 문제는 군부가 더 심하며 유소년 인구의 비중에 있어서도 시·군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전국 0-14세 인구변화



전북 0-14세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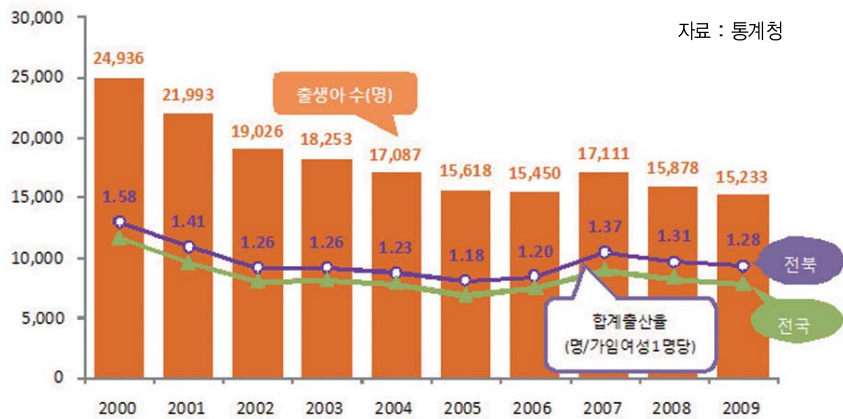


자료: KOSIS, 2005, 2010인구주택총조사

(2) 합계출산율 전국평균 상회

-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북의 출생아수는 2000년 24,936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다가 2007년 17,111명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다시 하향세를 보여 2009년에는 15,233명임
- ▶ 합계출산율 또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00년 1.58명에서 2009년에는 1.28명으로 줄어들어 저출산 문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음
- ▶ 전국과 비교할 때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약간 높은 편이지만 절대값에서 출산율이 낮아, 출산율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전북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KOSIS, 2000~2009년 인구동향조사

2) 노령화 지수의 상승과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이동

(1) 노령화 지수의 급격한 상승(74.7%에서 100.3%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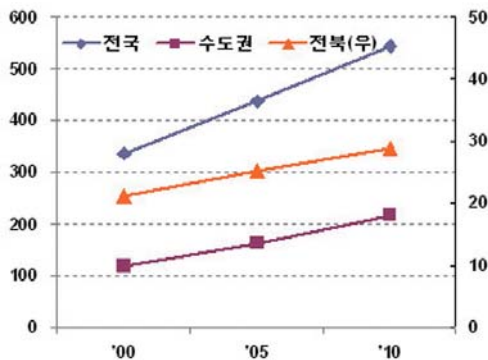
- ▶ 2000년부터 65세 이상 인구 변화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과 수도권에서도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 전북의 노령화지수를 보면 2005년 74.7%에서 2010년 100.3%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노인층의 인구 증가와 15세 미만의 인구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여 지수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음
- ▶ 노년인구부양비는 2005년 21.3%에서 2010년 24.4%로 증가하였고,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는 반대로 2005년 4.70명에서 2010년 4.10명으로 줄어들어 사회가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 이러한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생산가능인구 연령층의 감소로 지역의 경쟁력 약화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2) 고령사회 진입 후 초고령사회로 이동 중

- ▶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시·군별로 보면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임실군이 가장 높은 37.7%를 보임
- ▶ 전라북도내 전주, 군산, 익산의 고령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령화 사회의 초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도 전체적으로는 초고령화 사회에 아직 접어들지 않고 있으나, 고령사회로 접어든 이후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5, 14.2 → 2010,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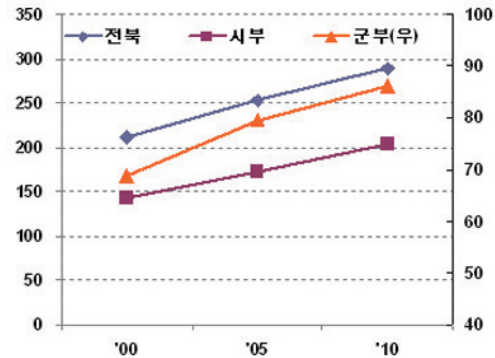
전국 노령층 인구변화

(단위: 만명)



전북 노령층 인구변화

(단위: 천명)



자료: KOSS, 2000~2010 인구주택 총조사

3. 다문화 이슈

1) 낮아지는 외국인 연령

(1) 시·도별 외국인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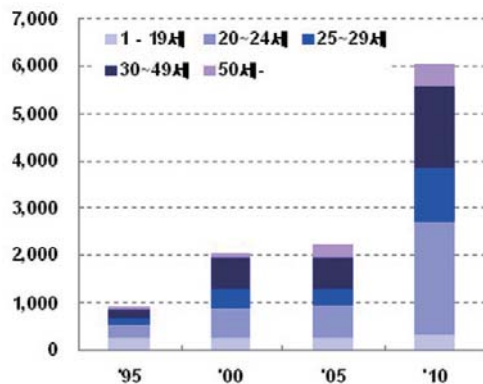
- ▶ 전라북도의 외국인 수는 전국 579,276명의 1.9%인 11,066명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남자는 5,033명, 여자는 6,033명으로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남녀의 성비가 균등한 편에 속함

(2) 전북 연령대별 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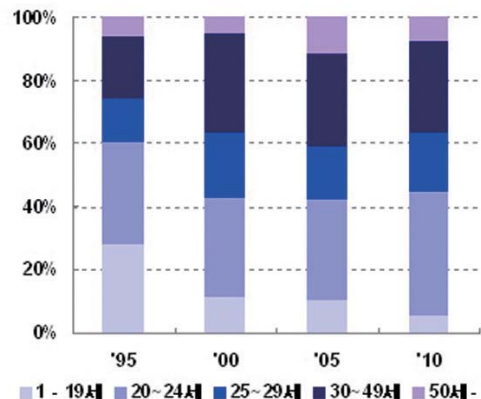
- ▶ 전북 외국인들의 연령대를 보면 청년연령인 15~29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4세 구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 연령대별 외국인 비율의 변화를 보면 2005년 대비 고령 연령층이 줄어들고 청년 연령층이 늘어나 외국인 평균연령이 낮아지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이주해오고 있는 외국인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주 원인으로 나타남
- ▶ 특히 여성의 연령별 구조를 보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20~24세의 연령층이 급격히 증가를 하였고 30~49세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여 결혼하는 연령층이 그 전보다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 외국인 여성의 연령층이 낮아지는 것은 지역에 적응을 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정을 꾸려가는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전북 연령대별 여성 외국인

(단위: 명)



전북 연령대별 여성 외국인 비율



자료: KOSIS, 1995~2010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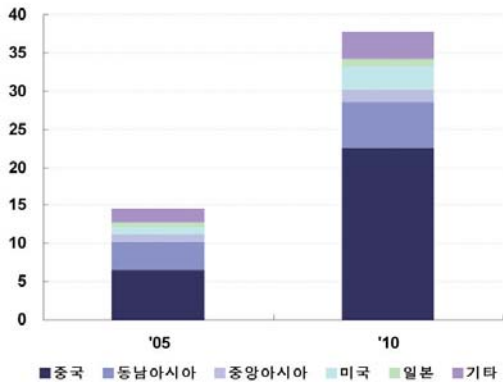
2) 증가하는 대졸이상 외국인 수

(1) 국적별 외국인 인구

- ▶ 수도권의 외국인 국적현황을 보면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성장세도 타 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동남아시아로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의 이주 또한 늘어나고 있음
- ▶ 전북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이주가 가장 많으나, 최근 들어 동남아시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의 여성들의 이주가 매우 크게 증가하였으며, 몽고에서의 이주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외국인 인구구조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 전북도 내 외국인의 국적비율을 보면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외국인을 연계해 주는 인력연계 서비스 담당 종사자가 다양한 국가에서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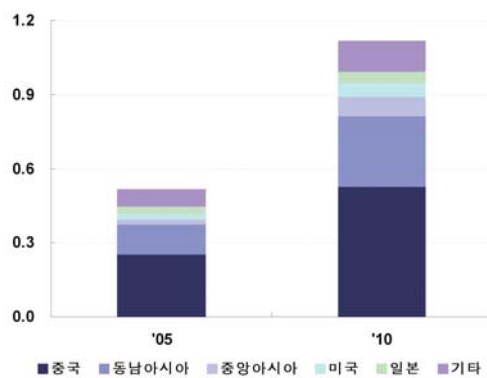
수도권 외국인 국적현황

(단위: 만명)



전북 외국인 국적현황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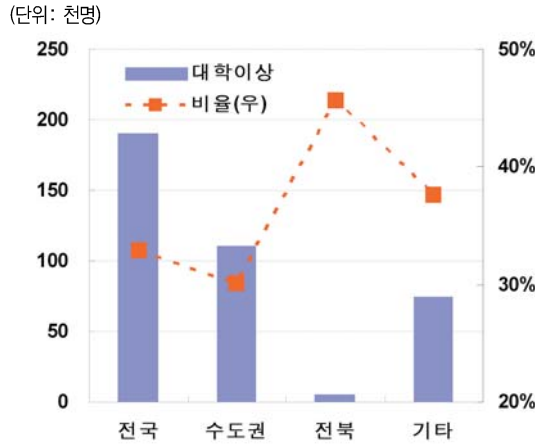


자료: KOSS, 2005, 2010인구조각조사

(2) 높아지는 외국인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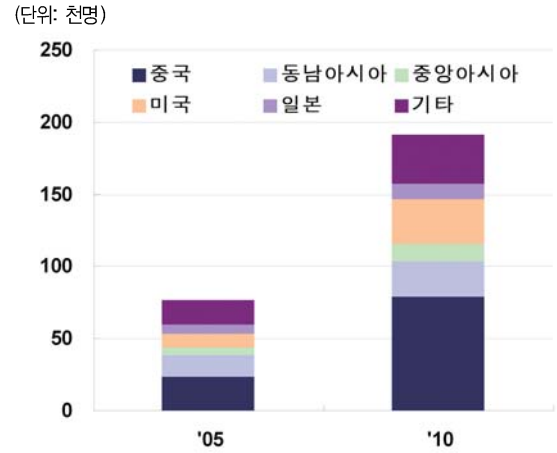
- ▶ 외국인 학력인구의 구성비를 보면 대졸이상의 외국인 비율은 전북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전북에 오는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고급인력임을 나타내줌
- ▶ 대졸이상 외국인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대부분 어학학원을 통한 입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사이 방과후 학교의 교사채용 증가로 그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함

대졸이상 외국인 현황



자료: KOSIS, 2005, 2010인구주택총조사

대졸이상 외국인 국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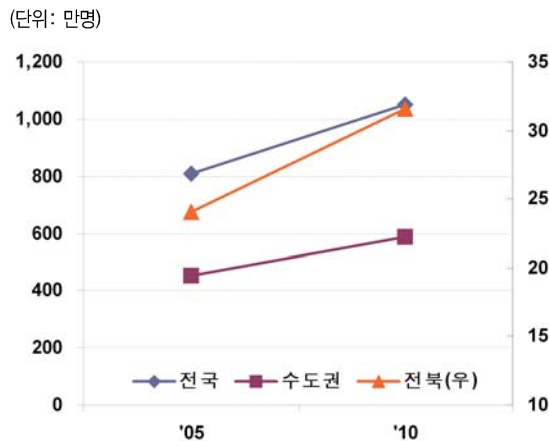


4. 교육 이슈

1) 고학력자 시 지역에 편중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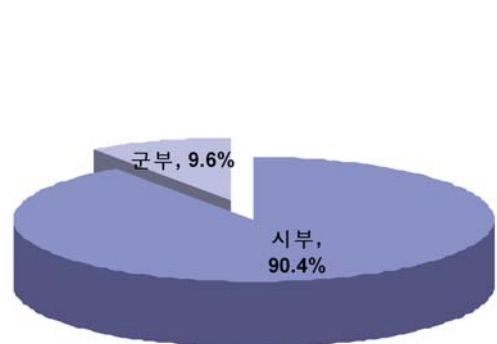
- ▶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원자료의 부재로 인해 분석 가능한 분야가 미흡하지만, 30세이상 대학이상 졸업한 인구 수는 5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함. 하지만 전국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은 전국대비 3.2%로 인구대비 비율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 대학 졸업 인구의 남녀인구 비를 보면 대학졸업 이후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남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의 고학력 비율이 높아짐
- ▶ 대부분의 전라북도의 고학력자는 시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30세이상 대학이상 교육 인구



자료: KOSIS, 2005,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북의 30세이상 대학이상 교육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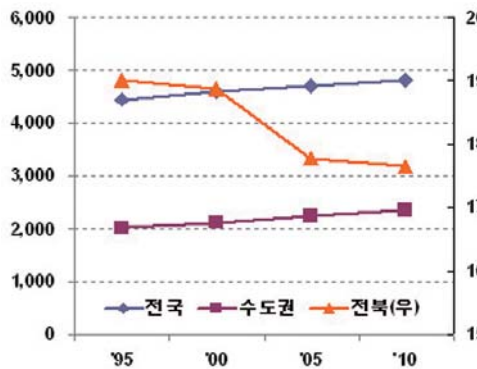
5. 기타 인구구조 이슈

1) 도내 인구의 도시집중 진행 중

- 전국의 인가와 수도권 인구의 변화를 보면 같은 방향으로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수도권의 인구집중도를 반영함
- 전북의 경우 1995년(1,900,558명)부터 2010년(1,766,044명)까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국과 수도권의 증가세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임
- 전북 내에서는 2010년도의 시부 인구는 감소폭이 미미하나, 군부의 인구는 크게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어 아직까지도 도시로의 집중이 진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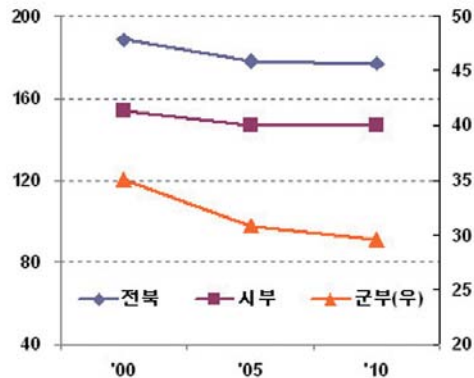
년도별 전국 인구변화

(단위: 만명)



년도별 전북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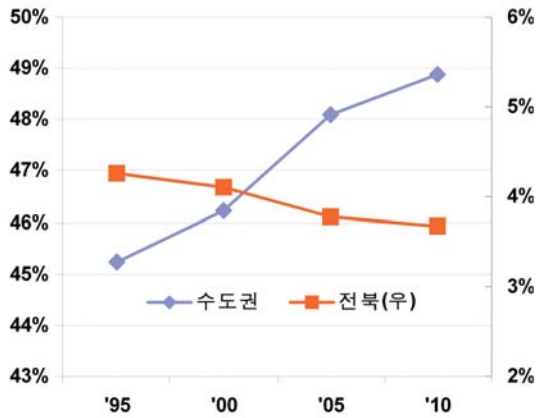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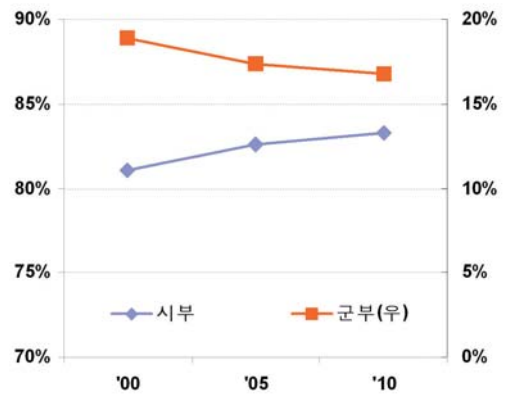
자료: KOSS, 1995~2010 인구주택총조사

-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199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전라북도의 인구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폭은 하락하고 있음
- 전북 내에서는 시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반면 군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도시로의 집중화가 현재에도 진행 중인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년층 위주의 외부로 부터의 인구유입과 군부에서의 도시로의 인구유출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년도별 인구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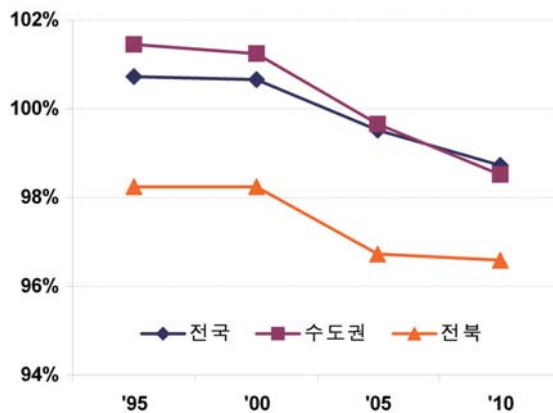
년도별 전북내 인구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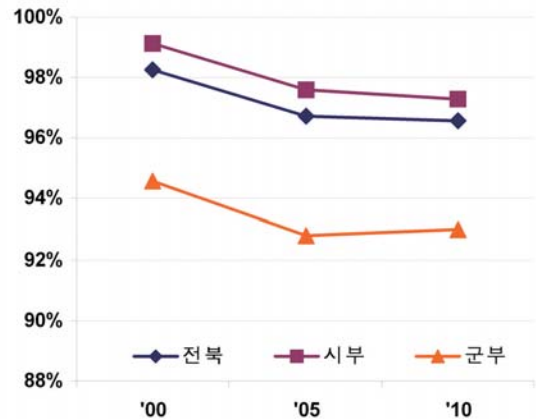
자료: KOSIS, 1995~2010 인구주택총조사

- ▶ 전북의 남녀 성비를 보면 전국과 수도권에 비해 낮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화 되고 있음
- ▶ 이는 유년기와 청년기 그리고 중년기 까지는 성비가 높으나, 그 이후 노년기를 거치면서 성비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이 원인이며 노년층에서 여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임(2010년, 65세 이상 64.0)
- ▶ 전북도 내에서 시부와 군부를 비교하면 군부의 경우 성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나, 15~64세의 성비의 증가로 인해 2005년과 비교해 2010년의 군부 성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년도별 전국 남/녀 성비



년도별 전북 남/녀 성비



자료: KOSIS, 1995~2010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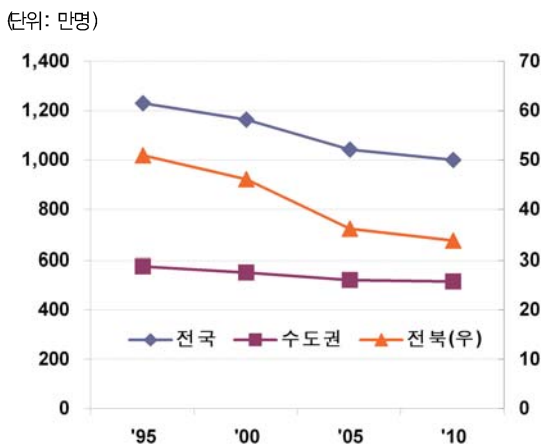
2) 세대 구성원 통계보다 작아

- ①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인구와 주민등록인구상에서의 인구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② 주민등록인구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차이는 10만 3천여명(2010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들이 타 지역에 이주하더라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취업을 위해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경우처럼 거주지와 주민등록 신고지가 다른 사람이 많이 있음을 보여줌
- ③ 전주시의 경우가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인구주택총조사 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큰 기초자치단체로 나타나, (광역시에서는 광주가 유일함) 전주시의 경우 전북도 내에서 구심력이 있어 인근 시·군지역에서 전주로 생활영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④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전북의 실제 가구당 인원수는 가구조사 통계보다도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핵가족화의 심화로 인한 소규모 가구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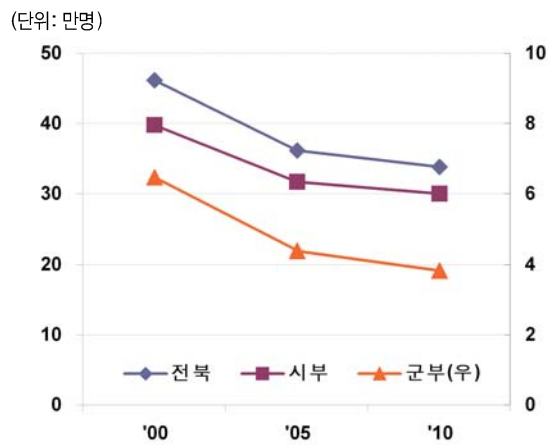
3) 생산 인력층의 고령화 심화(청·중년 감소, 장년인구 증가)

- ① 15~29세 청년인구 변화를 보면 청년층의 인구는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북의 경우도 청년인구의 감소가 지속되어 그 감소정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청년의 인구가 30만에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청년인구가 안정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② 전북도 내에서 시부와 군부를 비교해보면 군부의 유출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전국 청년층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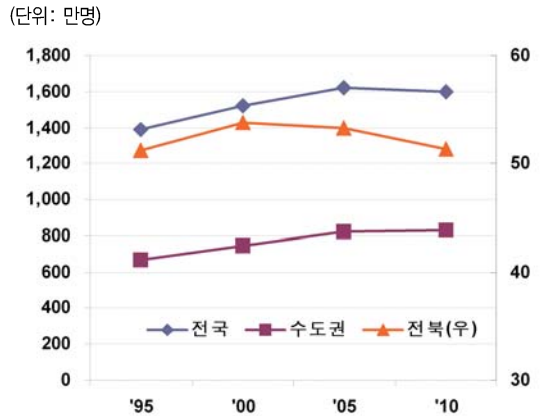
전북 청년층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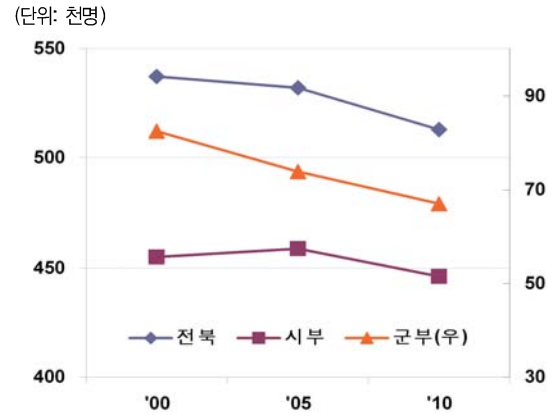
자료: KOSS, 1995~2010 인구주택총조사

- ▶ 30~49세 인구 변화를 보면 수도권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감소하고 있고, 전라북도 또한 감소세를 보임
- ▶ 전라북도의 중년 인구가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감소폭이 점차 커지고 있음

전국 중년층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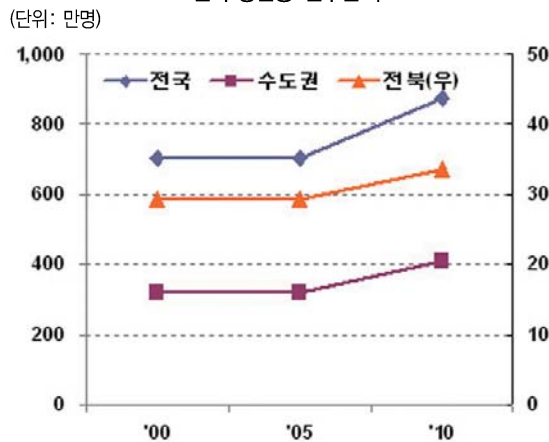
전북 중년층 인구변화



자료: KOSIS, 1995~2010 인구주택총조사

- ▶ 장년층의 인구변화는 전국의 형태와 유사하지만, 2010년에 인구의 변화율이 전국에 비해 완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장년층의 증가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증가에 따른 장년층의 cohort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임
- ▶ 전북 장년층의 인구를 보면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들어서서 군부의 인구가 감소하고, 전북 및 시부의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이는 장년층의 외부에서의 인구유입과 군부에서 시부로 인구의 이동으로 인한 것으로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장년층에서 채우는 현상을 보임

전국 장년층 인구변화



전북 장년층 인구변화



자료: KOSIS, 1995~2010 인구주택총조사

6. 정책제언

- 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의 정책적 효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② 지자체별로 지원하고 있는 현금 및 현물지원 정책은 정책효과가 의심되며, 정책적 지속성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계층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정책의 타깃을 삼아 중산층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
- ③ 저출산 문제는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 직장의 불안정성, 출산과 육아를 위한 기초 인프라의 부족, 양육비(학비 포함)의 부담 증가로 인해 출산을 꺼리고 있으므로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④ 고령화 문제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대수명의 증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지속적인 고령층 인구로의 유입으로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고령인구에 대한 일자리의 제공, 복지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임
- ⑤ 고령인구에 대한 일자리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신규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을 고려해 근무 형태의 유연화를 통해 많은 노동력이 일자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⑥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함. 외국인 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지난 5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다문화의 정착을 위한 정책이 요구됨
- ⑦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고 베트남, 중국(한국계), 필리핀, 미국, 몽골 순이지만 중국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외국인 여성의 다양화가 진행 중이며 해외이주 여성의 특징은 점차 이주해오는 여성의 평균 연령층이 낮아지고(2009년 29세) 대졸 이상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음

- ▶ 여성 외국인을 연령별로 보면 젊은층 유입도 증가하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성화하고,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함으로써 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네트워크 강화 필요함
- ▶ 또한 대졸 이상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을 사회적 약자로만 인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이 방과 후 교사의 틀을 넘어 전복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활용이 필요할 것임
- ▶ 청년층 인구유출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임. 청년층의 인구와 더불어 중년층의 인구 감소, 그리고 장년층의 인구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생산인력들의 고령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과 중년층의 일자리 유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참고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11년 5월 30일자,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인구부문)”
- 전국 다문화 전문가 정책간담회 자료, IOM 이민정책연구원,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통계청 “www.kosis.kr”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양동 4가 1번지)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